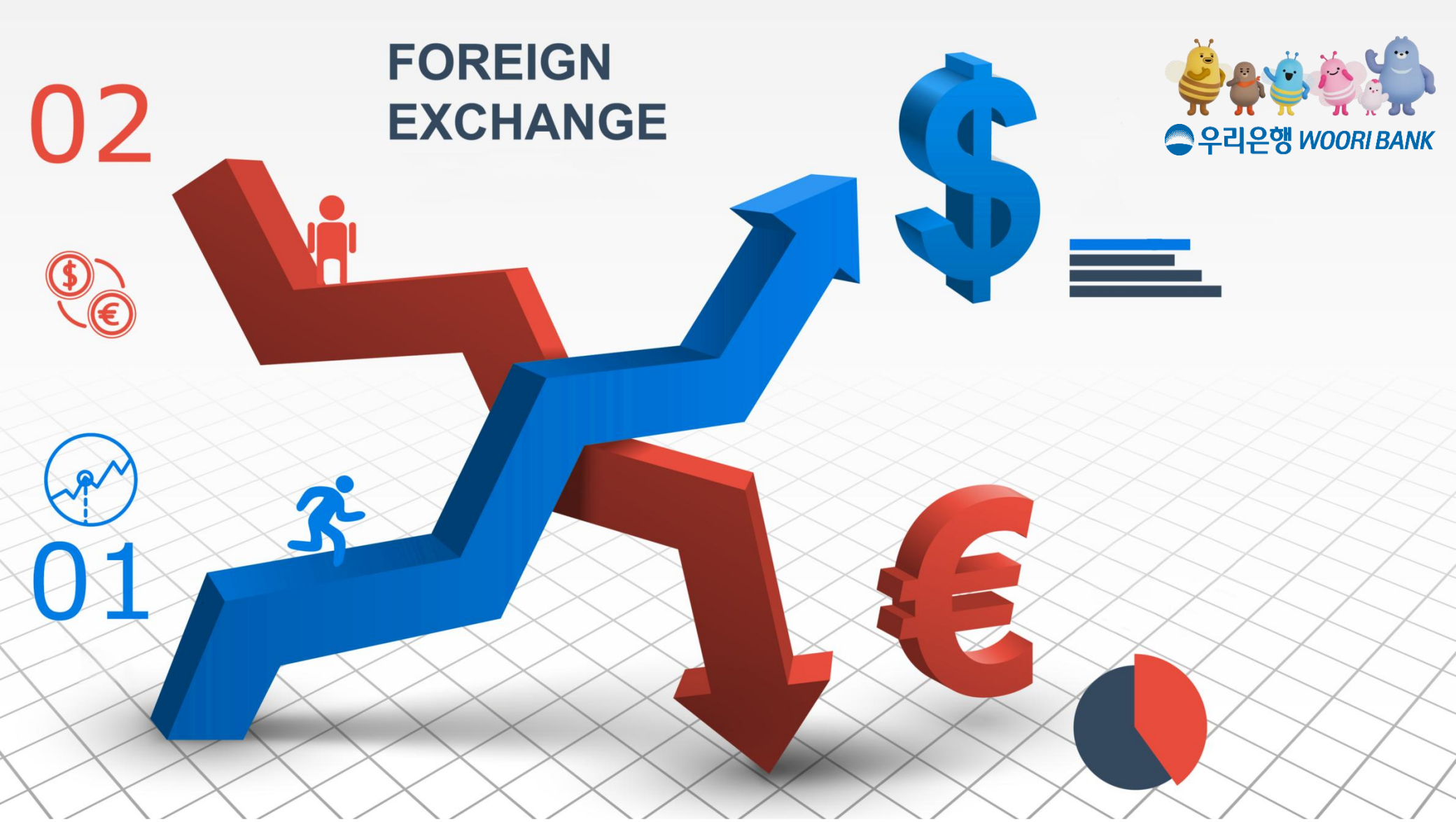
02

FOREIGN
EXCHANGE



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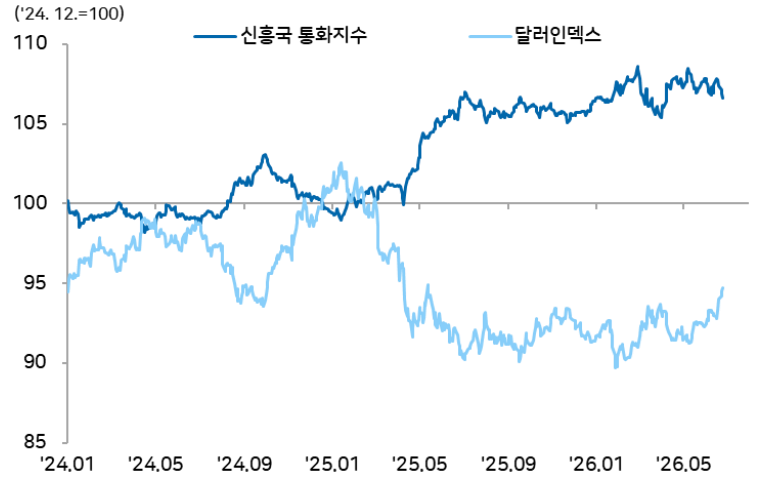
2026년 하반기 신흥국 외환시장 전망

- 달러의 그늘 속 신흥 통화, 국가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하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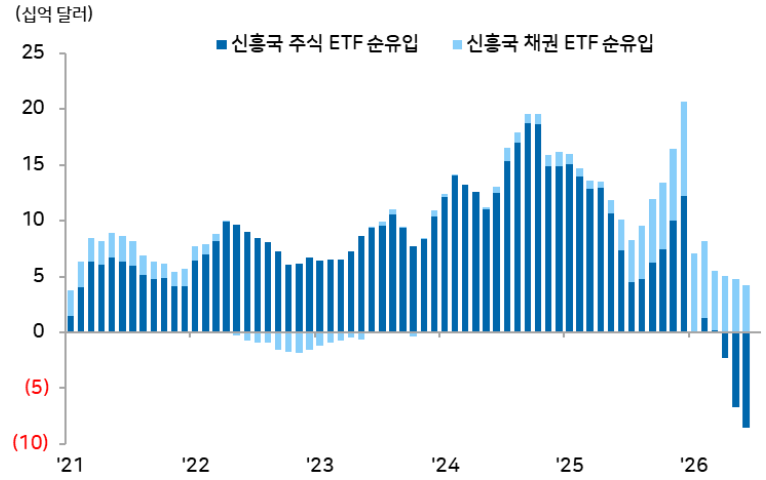
FX/Economist 임환열
hwanyeol.lim@wooribank.com

Summary

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신흥국 통화 가치 주춤



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흥국 자금 순유출 심화



신흥 시장 전망: 달러 방향성과 개별 국가 펀더멘탈에 따라 차별화

- 최근 신흥 통화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중동 리스크 재부각에 따른 달러 강세 재개로 대부분 약세로 전환. 다만 신흥국 크레딧 펀더멘탈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 중
- 선진국보다 앞선 긴축 효과에 따라 낮아진 인플레이션은 신흥국 증시 강세를 뒷받침. 하반기 신흥 통화는 달러 방향성과 개별 국가 펀더멘탈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흐름 예상

멕시코 페소 전망: 캐리 매력 약화, 재정 리스크 고려 시 완만한 약세 전망

- 하반기 달러/페소 환율은 비교적 견조한 투기적 포지션에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캐리 매력 약화와 재정 리스크를 고려해 완만한 수준에서 소폭 상승 전망
-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관세 리스크, 페멕스 부실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, 제조업 경기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어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

인도 루피 전망: 하반기 수급 개선이 이뤄지며 구조적 약세 흐름 일단락

- 장기간 약세 흐름을 보여온 루피화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동원한 방어적 개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. 여기에 외국인 증시 유입에 따라 수급 여건도 개선되며 루피화 강세 예상
- 최근 인도 증시의 정체는 외국인 수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밸류에이션 조정 측면이 강하며, 하반기에는 이러한 수급 쏠림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

폴란드 즈워티 전망: 견조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는 즈워티 강세

- 지정학적 분쟁 이후 급등한 폴란드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최근 평시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했고 EU발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예정.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즈워티 강세 예상
- 유로존 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및 수출 부문의 약화는 부담 요인이나 유럽 평균을 웃도는 견조한 성장률 전망과 투자 확대가 이를 상쇄

I. 달러 방향성에 시험대 오른 신흥 통화, 그래도 유효한 지지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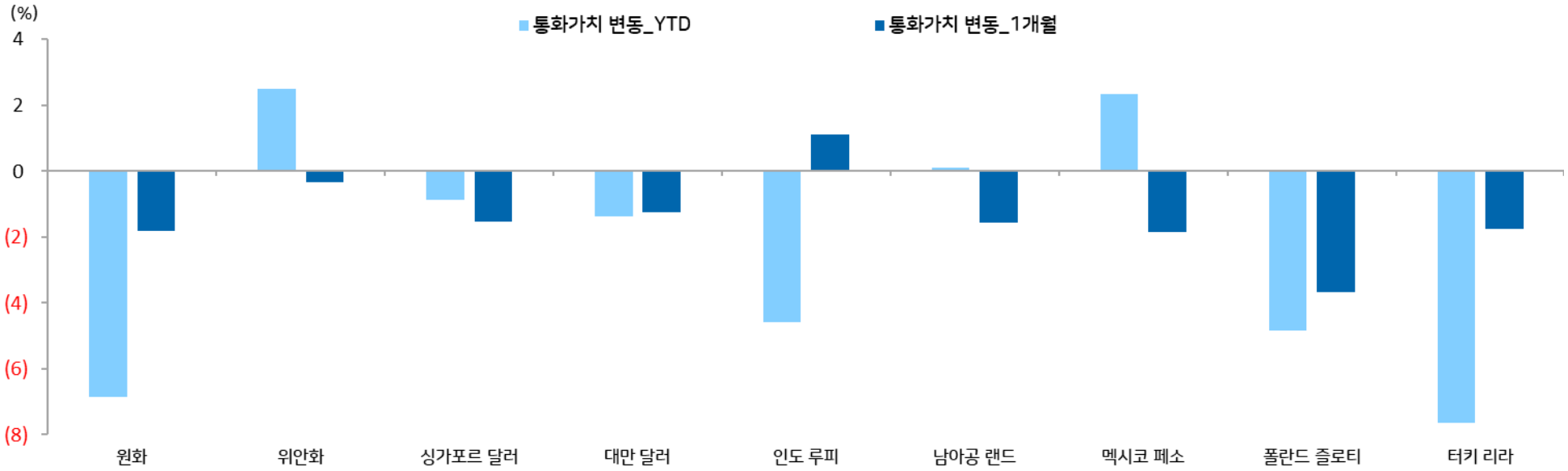
신흥국 통화, 연초 차별화 이후 달러 강세 재개에 동반 약세 압력

✓ 연초 이후 신흥 통화는 국가별로 뚜렷한 디커플링. 위안화와 멕시코 페소는 연초 대비 강세, 원, 리라, 즈워티, 루피는 5% 안팎 약세

✓ 최근에는 루피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화가 약세 전환. 미 국채금리 상승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에 따른 달러 강세 재개 영향

✓ 약세폭은 국가별 펀더멘탈에 따라 차별화. 결국 하반기 신흥국 통화는 달러 방향성과 개별 국가 고유의 요인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

신흥국 통화의 연초대비, 최근 1개월 수익률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. 달러 방향성에 시험대 오른 신흥 통화, 그래도 유효한 지지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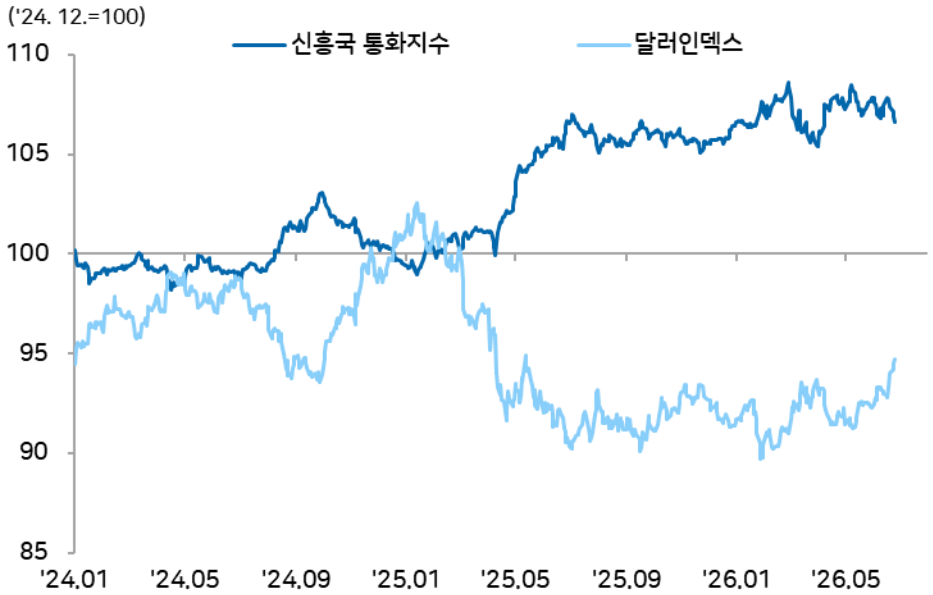
달러 약세와 안정된 크레딧 여건이 이끈 신흥국 통화 강세

✓ 작년 이후 신흥국 통화지수는 달러의 추가적 약세와 동행하며 상승. 다만 최근 달러인덱스가 반등하며 신흥 통화지수 상승폭 제한

✓ 국제유가는 지정학 리스크 부각 국면에서 급등세를 보였으나 신흥국 크레딧 위험을 나타내는 EMBI 스프레드는 오히려 하향 안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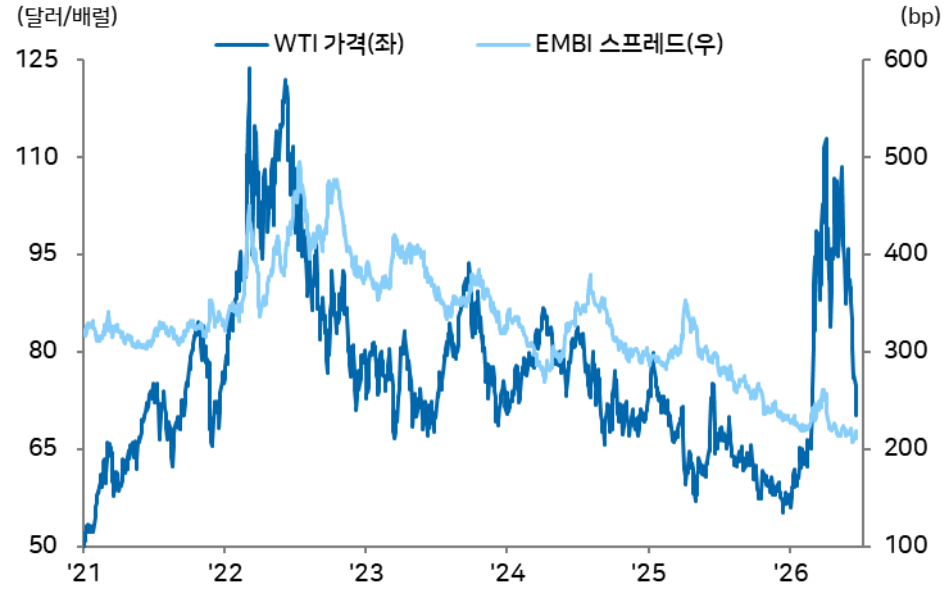
✓ 이는 최근 지정학적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았으며 신흥국 크레딧 시장의 펀더멘탈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견고함 시사

올해 들어 달러가 반등하면서 신흥국 통화 강세폭 제한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이란전쟁 이후 유가 반등해도 신흥국 크레딧 위험은 안정적으로 유지



I. 달러 방향성에 시험대 오른 신흥 통화, 그래도 유효한 지지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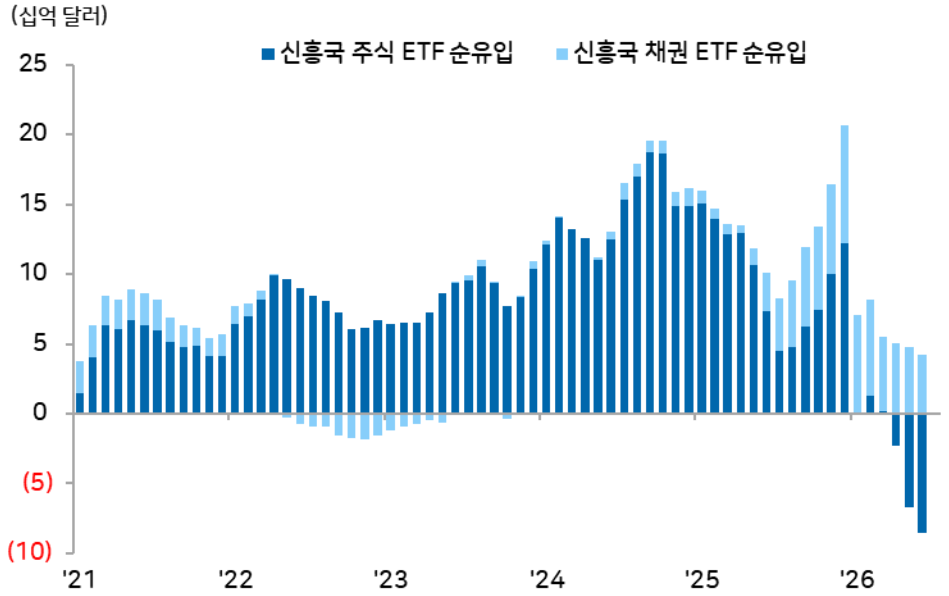
글로벌 유동성 둔화에 주춤해진 신흥국 향 자금 유입

✓ 신흥국 주식 및 채권 ETF는 2021년 이후 대체로 순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이러한 흐름은 반전되어 마이너스 전환

✓ 유동성 증가세가 견조할 때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강화되는 경향. 최근 ETF 순유출 전환은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 약화와 연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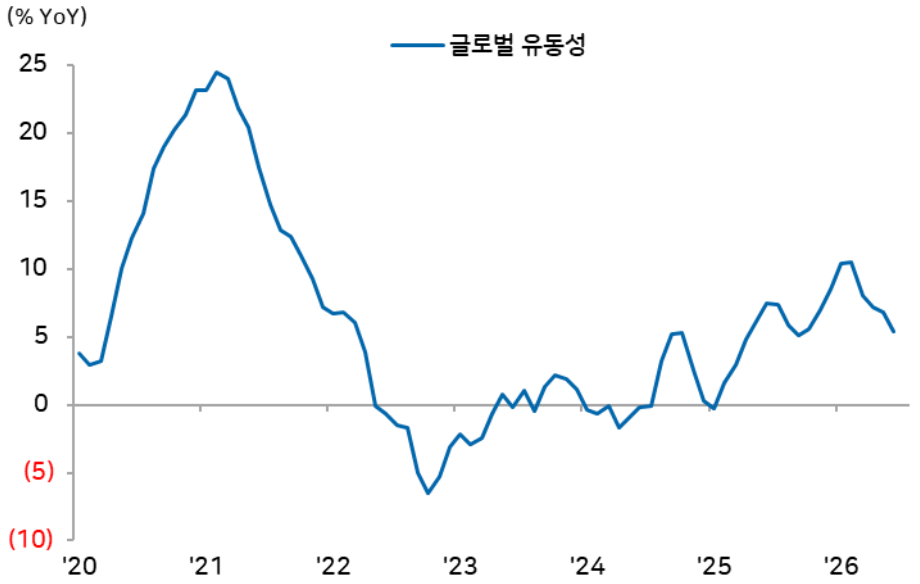
✓ 글로벌 유동성 지수는 미국 연준,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지표로 최근 들어 증가 속도 둔화

신흥국 주식 및 채권 ETF 순유입, 5년래 최대치 기록 후 마이너스 전환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올해 10%대에서 5%대로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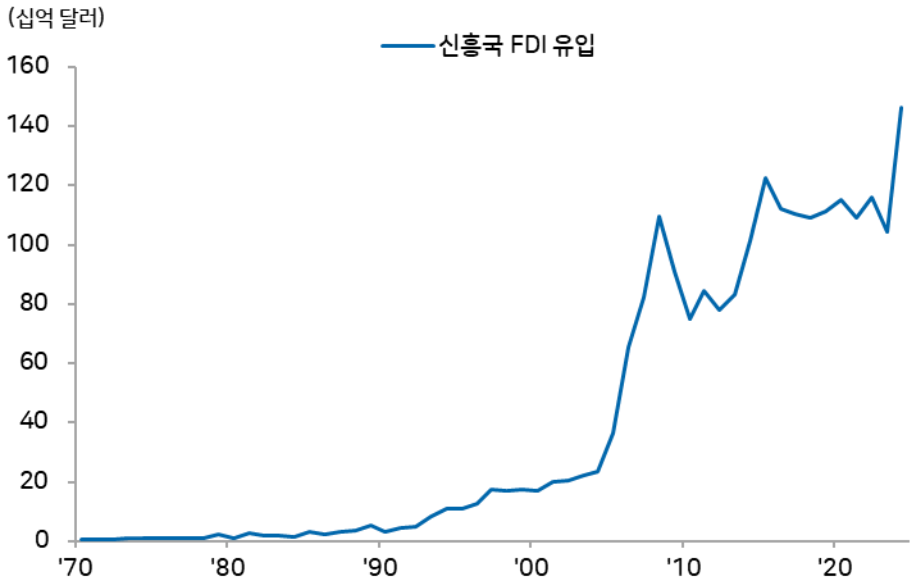


I. 달러 방향성에 시험대 오른 신흥 통화, 그래도 유효한 지지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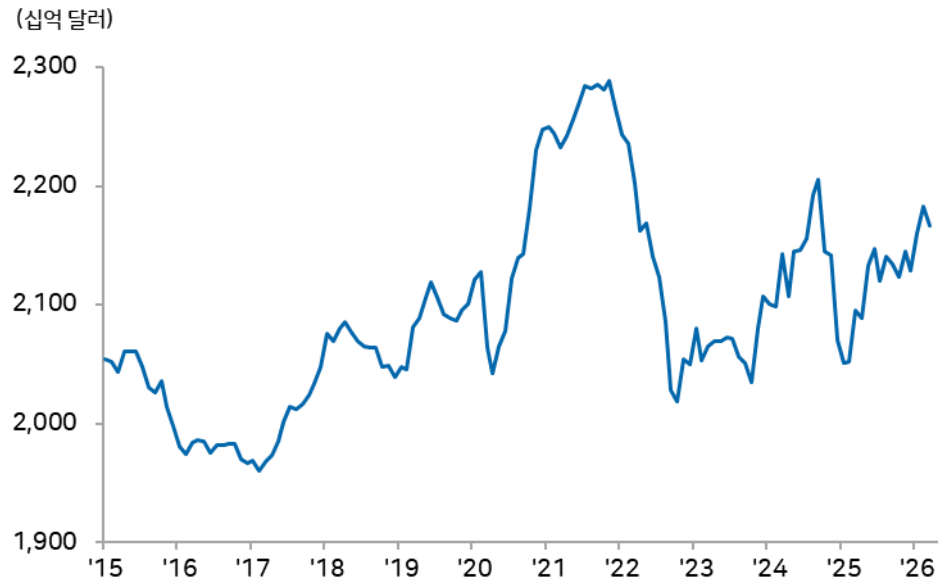
장기 및 구조적 자금 유입과 단기 환율 완충판이 신흥 통화 가치 뒷받침

- ✓ 신흥국 FDI 순유입은 최근 공급망 다변화, 니어쇼어링 흐름과 맞물려 사상 최대 수준 기록. 신흥국 대상 구조적 수요 견조하게 유지
- ✓ 중국을 제외한 외환보유액 상위 5개국(인도, 사우디아라비아, 홍콩, 한국, 브라질)의 합산 외환보유액은 1.9조~2.3조 달러에서 등락
- ✓ 신흥국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과 환율 방어 여력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환율의 단기 완충 역할에는 충실할 수 있는 규모

신흥국 FDI 유입액은 2024년 1,500억 달러에 육박해 최대 수준 경신



중국 제외한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상위 5개국 합산액은 2.1~2.2조 달러 수준



출처: Bloomberg, World Bank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. 달러 방향성에 시험대 오른 신흥 통화, 그래도 유효한 지지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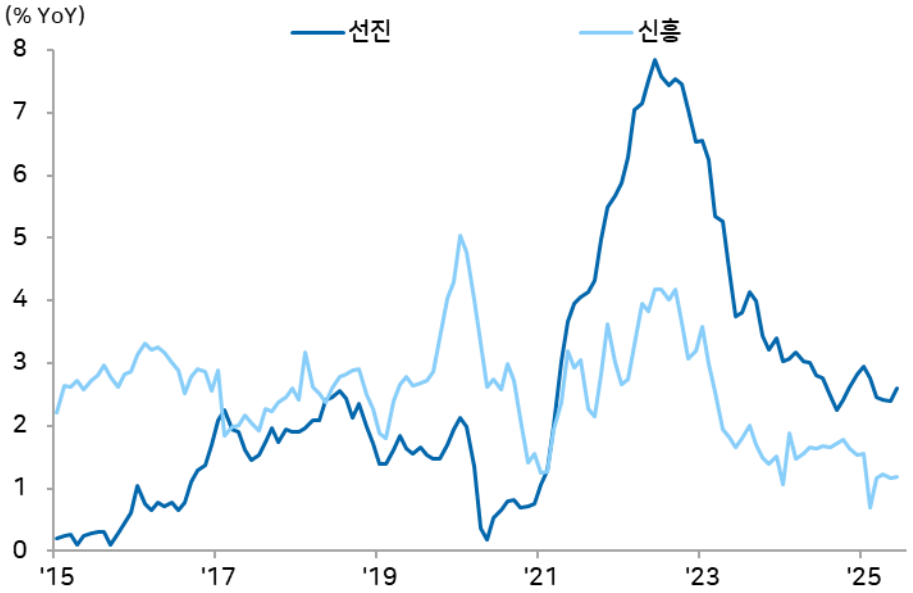
낮아진 신흥국 인플레이션이 신흥국 주가지수 상승 촉발

✓ 신흥국 중앙은행은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서 긴축에 나선 정책 효과가 누적되며 선진국 대비 1%p 이상 낮은 물가상승률 구가 중

✓ 낮아진 신흥국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여력은 글로벌 유동성 개선, 자금 유입과 함께 신흥국 증시 강세 뒷받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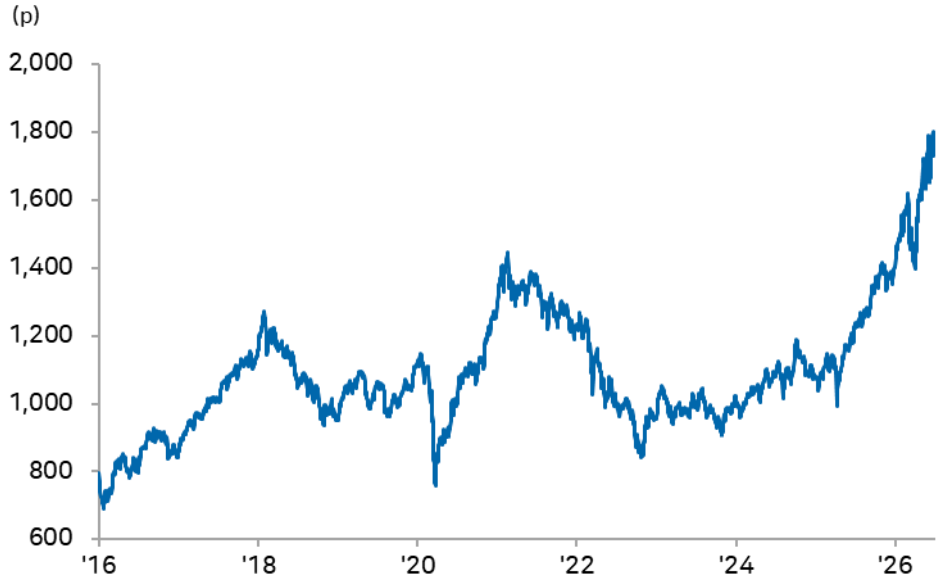
✓ 물론 최근 신흥국 주가지수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단기 과열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평가

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을 기점으로 신흥국을 추월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MSCI EM 지수는 2021년의 고점을 넘어 사상 최고치 경신



II. 캐리 매력 약화와 재정 리스크 이중고를 겪는 멕시코 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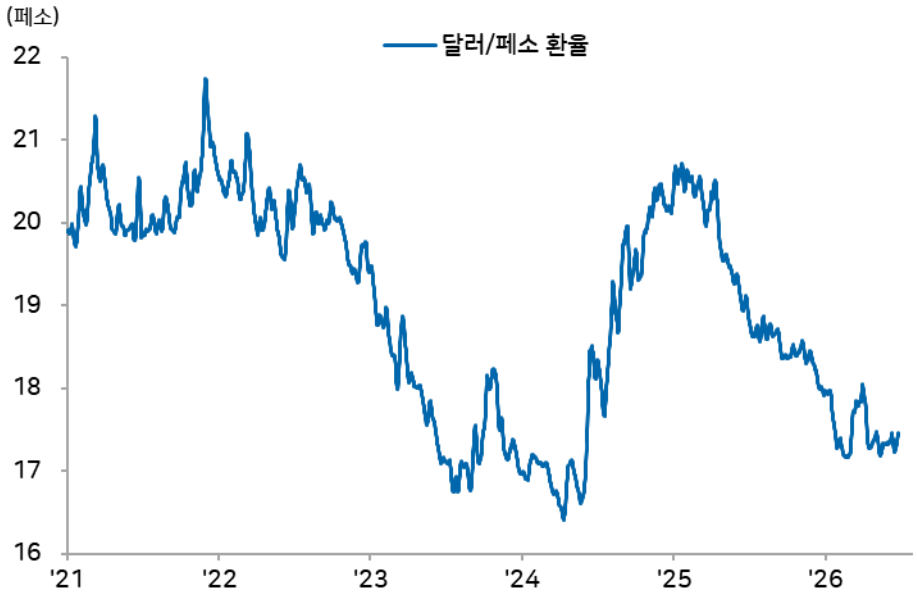
낮아진 달러/페소 환율과 함께 누그러진 페소 약세 리스크 헤지 수요

✓ 작년 이후 페소화는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고 중앙은행의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페소화는 재차 강세로 돌아선 상황

✓ 한편 달러/페소 리스크 리버설은 올해 3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국면에서 4% 중반까지 급등하면서 페소 급락에 대비한 수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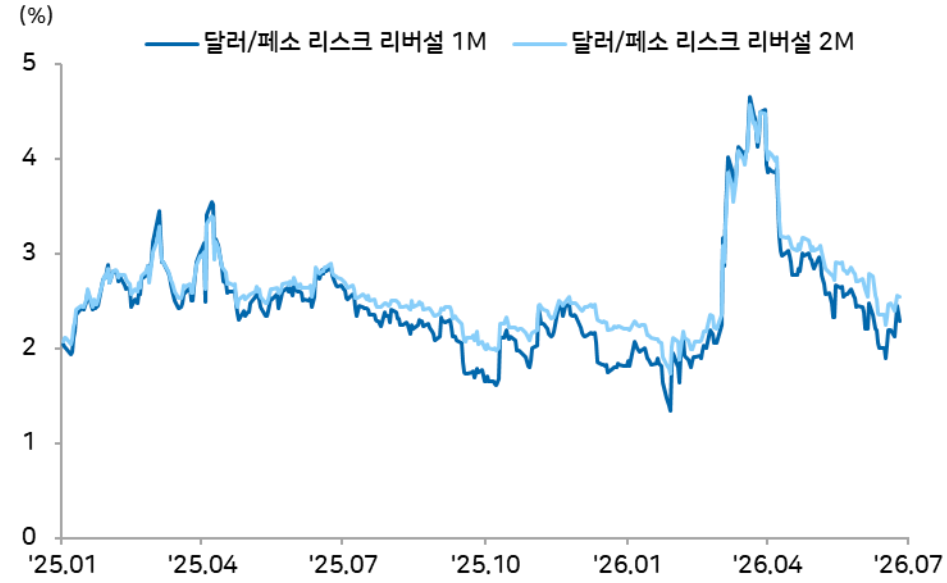
✓ 최근에는 리스크 리버설이 2%대 초반까지 낮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페소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꺾인 것으로 해석

달러/페소 환율은 작년 이후 줄곧 하락하며 페소화 강세 흐름을 반영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달러/페소 리스크 리버설 역시 최근의 페소 강세를 반영하며 2%대로 하락



II. 캐리 매력 약화와 재정 리스크 이중고를 겪는 멕시코 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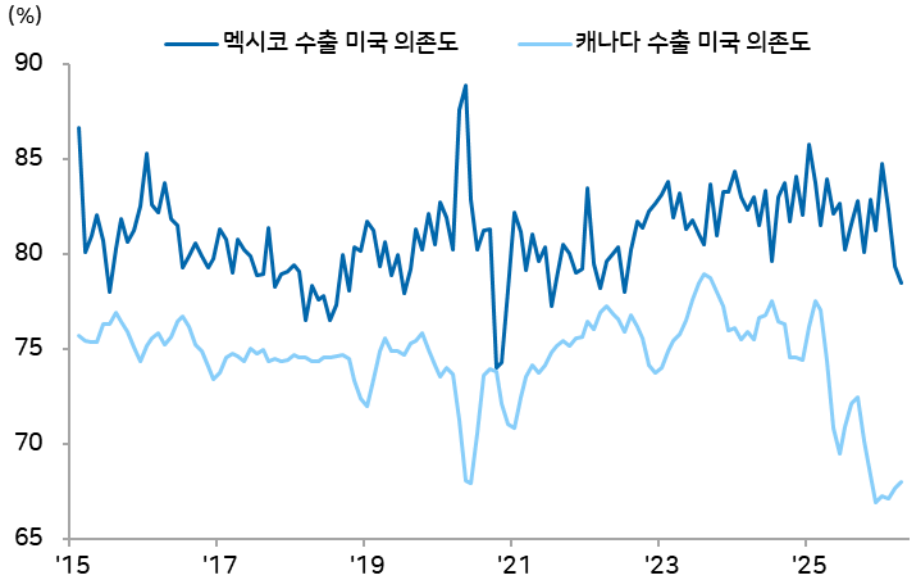
견고한 멕시코의 대미 의존도, 업종별 수출 평가는 차별화

✓ 캐나다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 속 수출선 다변화 진행, 멕시코는 니어쇼어링에 기반한 미국 중심 공급망 구조 더욱 견고하게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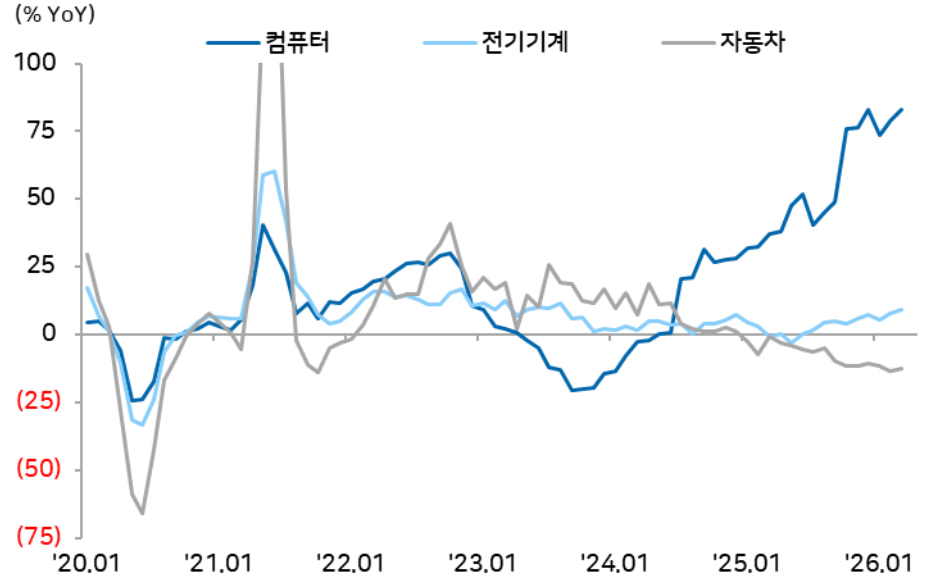
✓ 멕시코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별 흐름을 보면 업종 간 차별화 뚜렷.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가 부담이 되어 자동차 수출 부진

✓ 한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AI 및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따른 전자기기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며 증가율 확대

멕시코의 수출 미국 의존도 80% 내외 유지, 캐나다는 67%로 하락



멕시코의 부문별 대미 수출, 컴퓨터는 호조, 전기기계와 자동차는 부진



출처: Bloomberg, UN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I. 캐리 매력 약화와 재정 리스크 이중고를 겪는 멕시코 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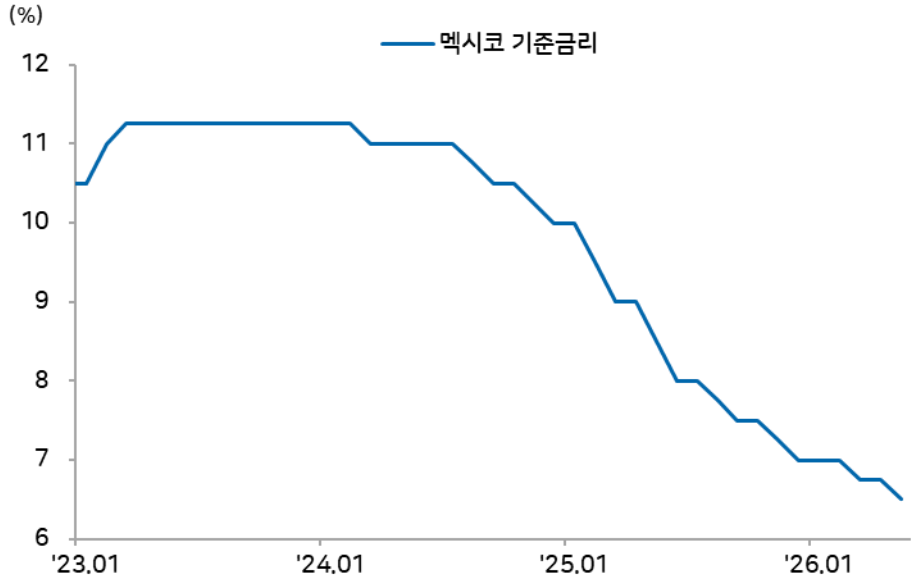
좁혀지는 미-멕시코 금리차, 페소 캐리 매력의 향방

✓ 멕시코의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에 근접하며 Banxico는 점진적 금리 인하 단행 중. 2026년 6월 현재 6.50%까지 하락

✓ 2021~2023년 Banxico의 공격적 긴축에 따른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는 캐리트레이드 매력을 발생시켜 페소화 강세의 핵심 동력

✓ 최근 들어 멕시코의 완화적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될 경우 페소 캐리 매력 약화 우려 점증

멕시코 기준금리, 2024년 11.25% 정점 이후 최근 6.50%로 하락



미국과 멕시코 기준금리차가 좁혀지며 멕시코 페소화 캐리 매력은 약화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I. 캐리 매력 약화와 재정 리스크 이중고를 겪는 멕시코 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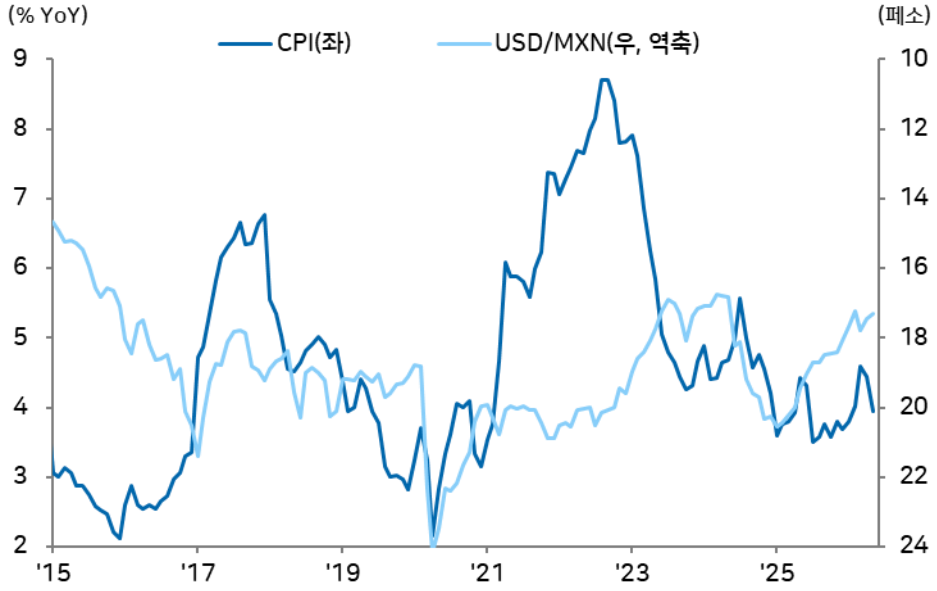
중동 리스크에도 버틴 멕시코 인플레이션, 완화적 통화정책 뒷받침

✓ 멕시코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.9%를 기록하며 둔화폭 확대.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이 페소 약세 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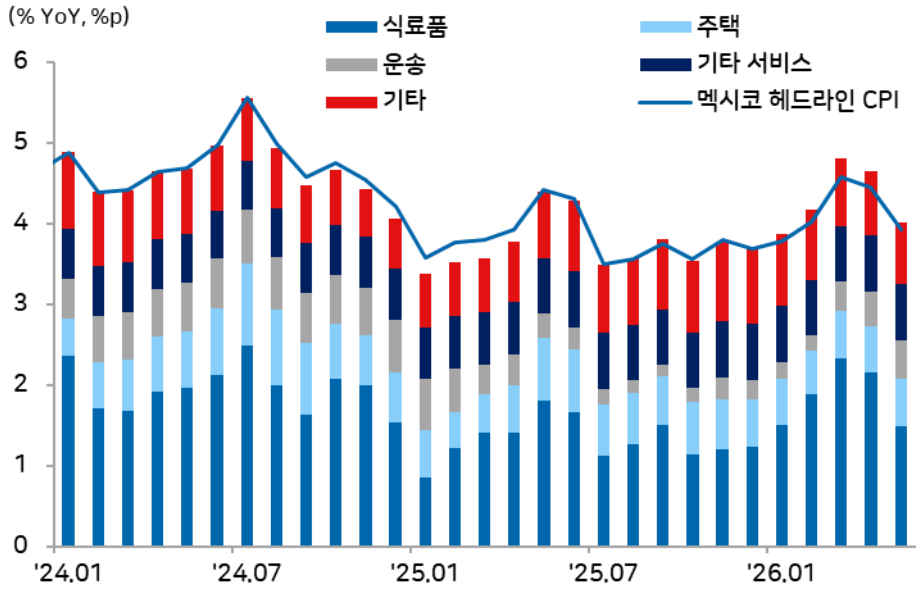
✓ 항목별로 분해해 보면 식료품이 가장 큰 비중으로 CPI 둔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 항목도 두 번째로 큰 기여 요인

✓ 중동 리스크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유류세 감면, 가격 상한 조치로 에너지 부문 인플레이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

멕시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% 내외로 둔화되며 목표치 내 복귀



식료품이 CPI 둔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격도 비교적 안정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I. 캐리 매력 약화와 재정 리스크 이중고를 겪는 멕시코 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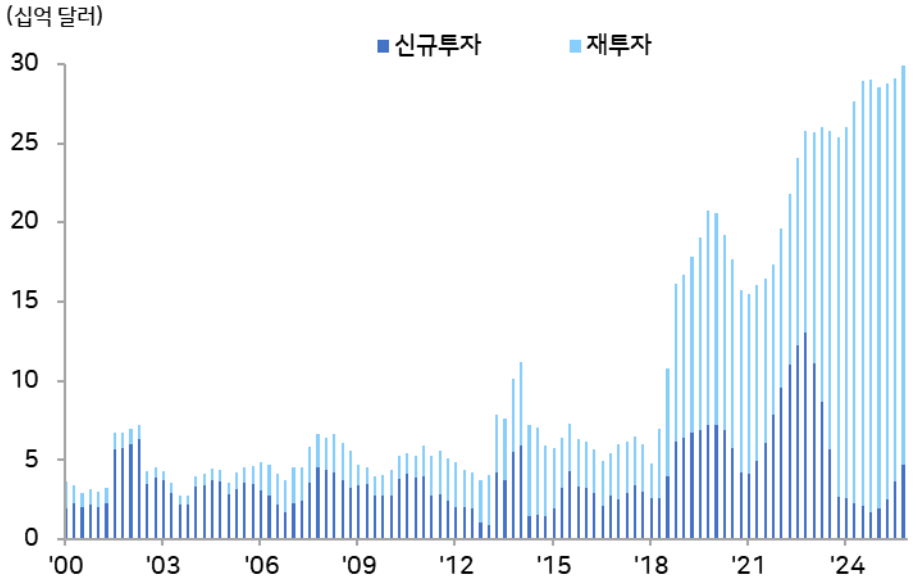
관세 충격에 제조업은 출렁이나 경제 전반은 견조

✓ 202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멕시코로의 FDI는 기존 진출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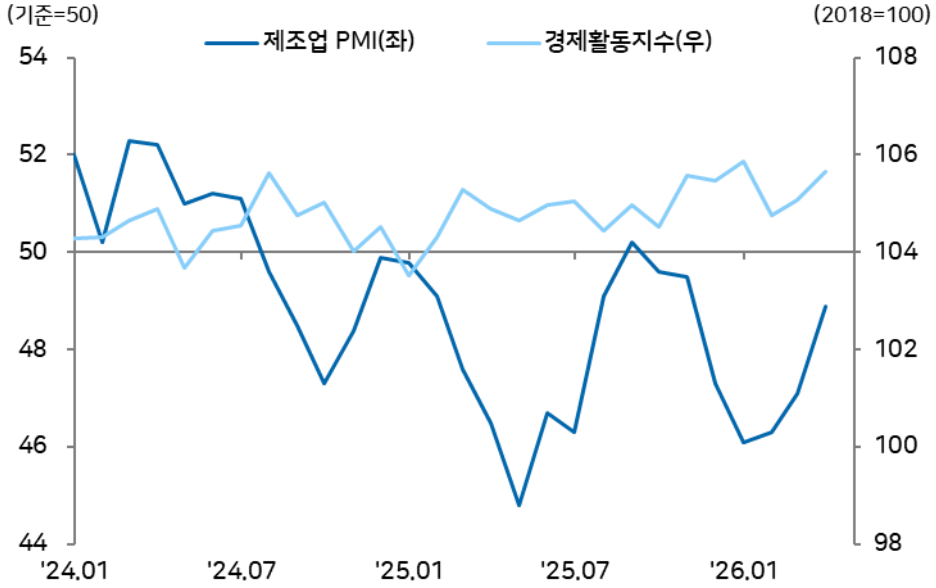
✓ FDI 급증을 니어쇼어링에 따른 신규 생산설비 확충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신중. 향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는 상황

✓ 대외 불확실성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지수가 상승하는 등 경제 전체의 복원력은 상대적으로 견조

멕시코 유입 FDI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재투자 형태



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충격은 서비스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으로 확산이 제한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I. 캐리 매력 약화와 재정 리스크 이중고를 겪는 멕시코 페소

페멕스 부실이 키우는 멕시코 재정 리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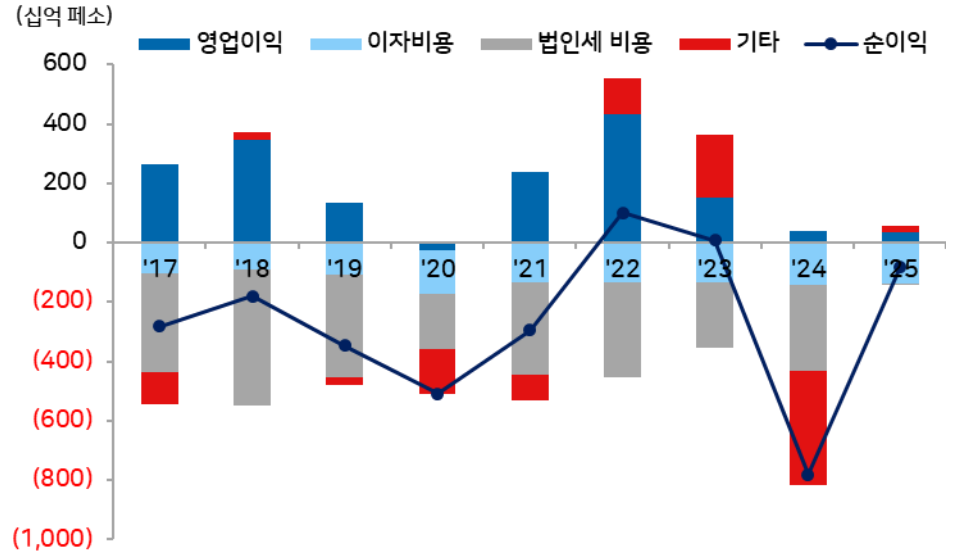
✓ 멕시코 재정적자 비율은 셰인바움 정부가 재정건정화를 목표로 내세웠음에도 여전히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에서 유지

✓ 정부의 재정적자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 및 부채 상환 패키지를 통한 국영석유기업인 페멕스의 금융 부채 감축도 한 축으로 작용

✓ 페멕스의 손익구조를 보면 영업이익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지만 법인세, 이자비용이 커 순이익이 매년 적자를 보이는 구조

멕시코 재정적자 비율 2024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

멕시코 국영석유기업 페멕스의 순이익은 법인세와 이자비용 등으로 적자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I. 캐리 매력 약화와 재정 리스크 이중고를 겪는 멕시코 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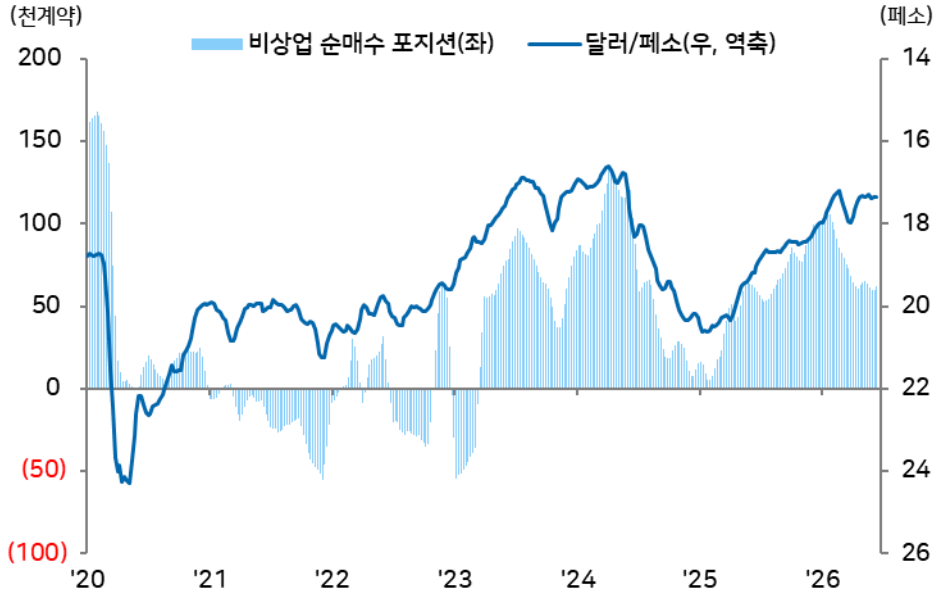
하반기 달러/페소는 순매수 우위에도 리스크 요인 상존한 영향에 좁은 범위 상승 전망

✓ 멕시코 페소에 대한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은 작년 이후 대체로 순매수 우위. 하지만 올해 들어 순매수 규모는 소폭 둔화

✓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과 달러/페소 환율은 대체로 동행. 향후 대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경우 추가 포지션 청산 가능성 대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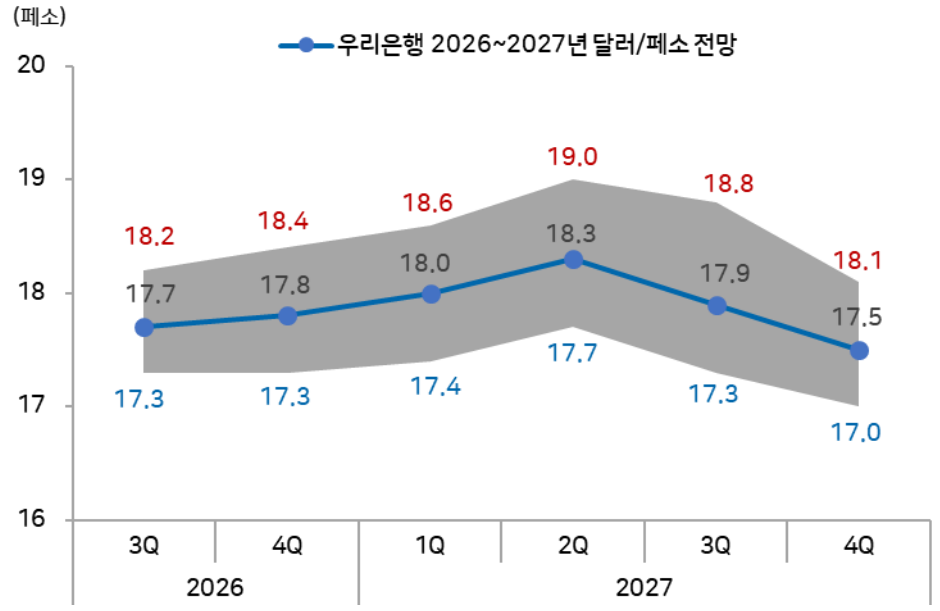
✓ 하반기 달러/페소 환율은 비교적 견조한 투기적 포지션과 축소되고 있는 금리차 등 고려 시 완만한 수준에서 소폭 상승 예상

멕시코 비상업성 순매수 포지션 여전히 매수 우위나 증가폭은 둔화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2026년 하반기 달러/페소는 17.3~18.4페소의 좁은 구간 내 소폭 상승 예상



III. 구조적 약세 속 하반기 수급 개선에 기대를 거는 인도 루피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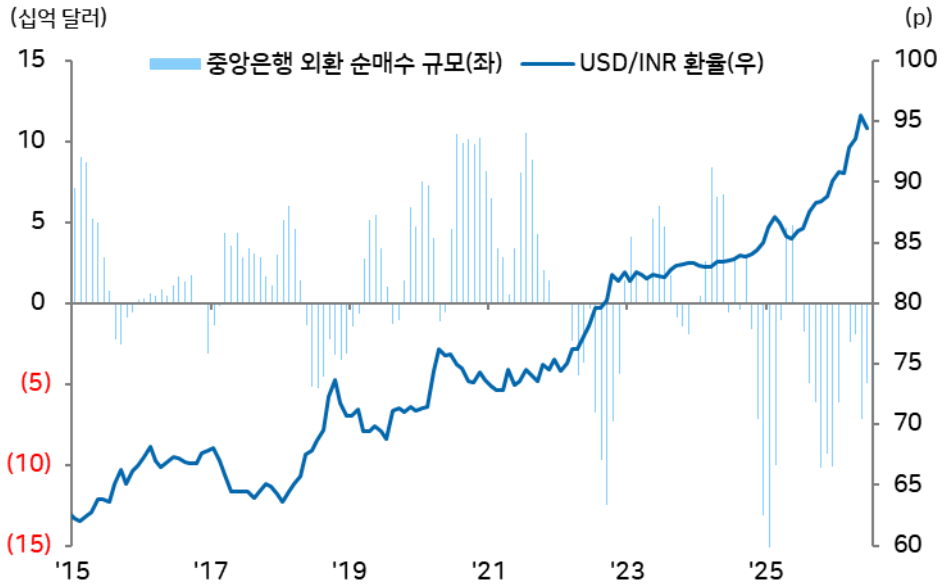
커지고 있는 무역적자가 설명하는 루피화의 장기 약세

✓ 루피화에 대한 구조적 약세 흐름에 인도 중앙은행은 2022년 이후로는 순매도 국면으로 전환돼 루피화 방어를 위한 개입 본격화

✓ 한편 인도의 무역수지는 2021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회복에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앞지르며 적자폭이 구조적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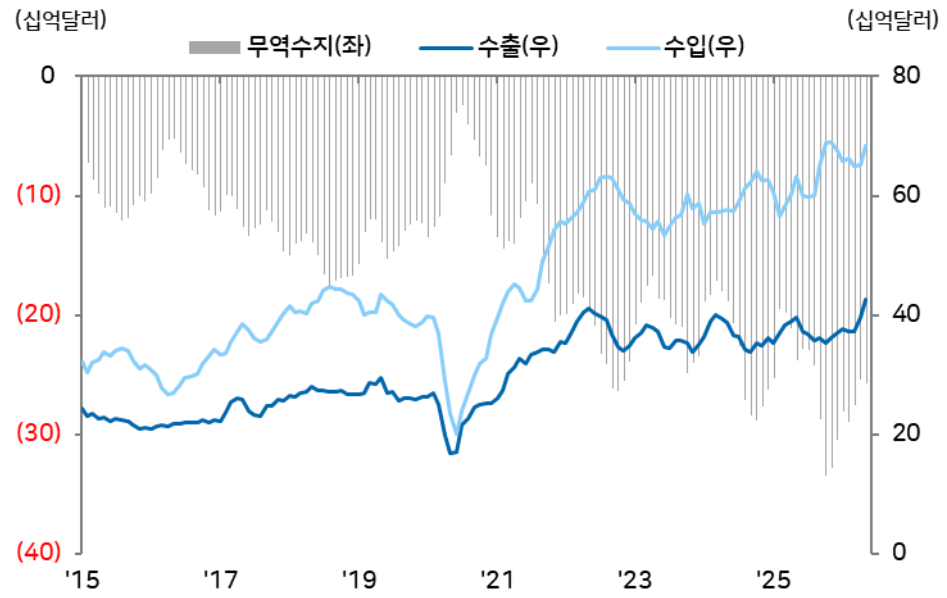
✓ 구조적으로 벌어진 무역적자가 루피화의 장기 약세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소진을 동시에 설명하는 핵심 배경으로 작용

인도 중앙은행은 2022년 이후 외환 순매도 국면으로 전환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인도 수입이 수출을 압도하며 무역수지 적자폭 구조적 확대



III. 구조적 약세 속 하반기 수급 개선에 기대를 거는 인도 루피화

외환보유액의 수입 대비 커버리지 안정적 흐름 유지

✓ 2023년 회복되기 시작한 인도의 외환보유액은 7,000억 달러대 수준의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최근 개입이 이어지며 소폭 감소

✓ 한편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을 보면 수입액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에 9~11%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등락 중

✓ 늘어난 수입 규모를 감안한 상대적 방어력은 과거 대비 낮아졌다는 점에서 향후 루피화 방어 여력에 대해서는 현재 중립적인 상황

인도 외환보유액은 7,000억 달러대 사상 최고치권에서 소폭 둔화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인도 외환보유액의 수입 대비 비율은 10%대로 안정적인 흐름 유지

III. 구조적 약세 속 하반기 수급 개선에 기대를 거는 인도 루피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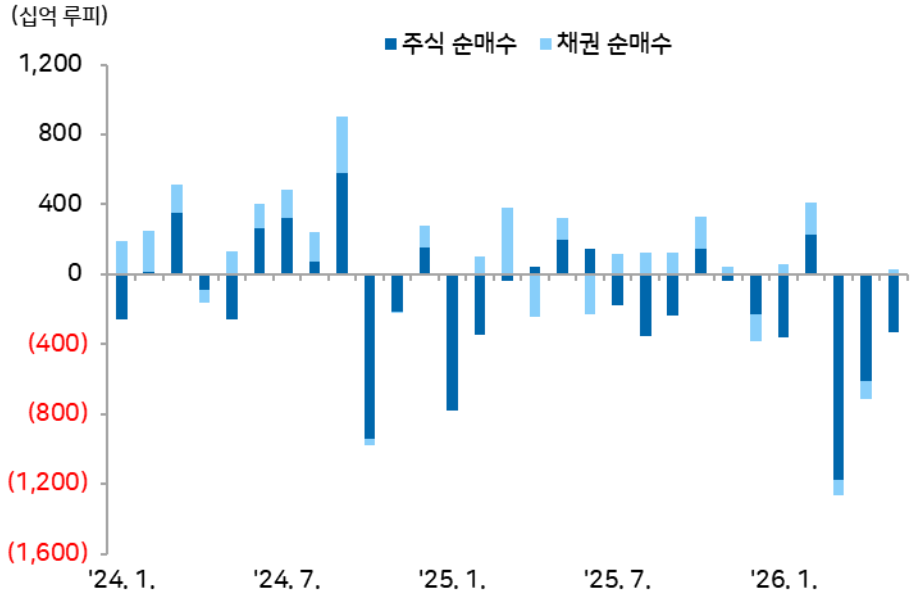
약해지는 포트폴리오와 FDI 자금 유입이 루피화 지지력 상실 배경

✓ 올해 초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동시에 큰 폭의 순매도가 발생하며 가장 강한 자금 유출 압력을 보이며 루피화 약세에 일부 일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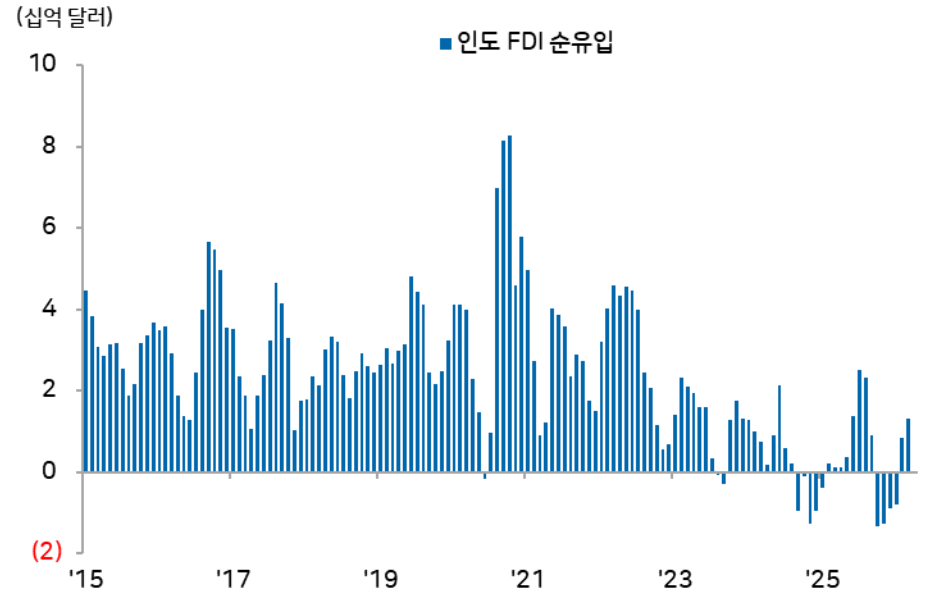
✓ 채권은 지수 편입에 따른 구조적 수요로 비교적 꾸준한 유입을 이어간 반면 주식은 밸류에이션 성장 둔화 우려 등에 민감하게 반응

✓ FDI는 작년부터 일부 달에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약화되는 흐름. 이는 루피화에 대한 지지력이 약화됐음을 시사

외국인의 인도 주식과 채권은 올해 들어 순매도 우위



인도 FDI 순유입은 2010년대 중후반 대비 큰 폭 약화되며 둔화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II. 구조적 약세 속 하반기 수급 개선에 기대를 거는 인도 루피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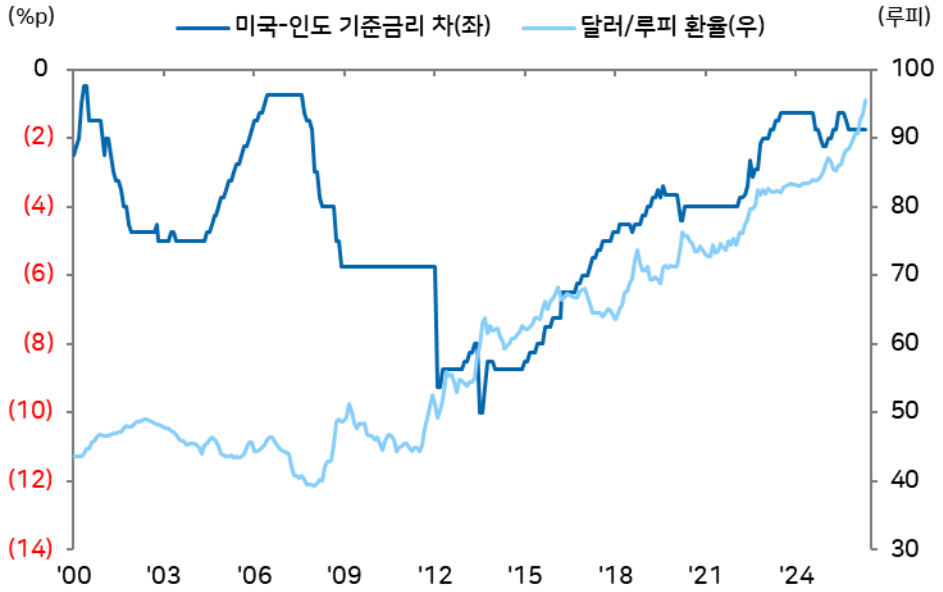
높은 금리 수준도 루피화 장기 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

✓ 인도는 미국 대비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으나 장기간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루피화 약세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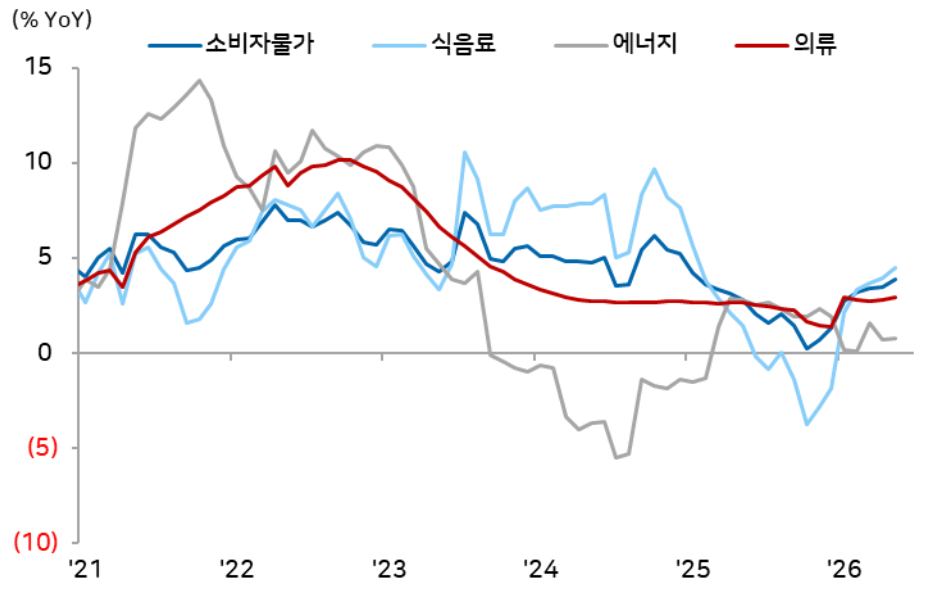
✓ 여기에 더해 인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구조적 무역적자가 실질환율 측면에서 루피 약세 압력을 누적

✓ 작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며 인도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을 넓혔으나 최근 들어 식음료를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

인도 기준금리는 5.25%로 3.75%인 미국 대비 높은 기준금리 유지



인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.9%를 기록하며 상승폭 확대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II. 구조적 약세 속 하반기 수급 개선에 기대를 거는 인도 루피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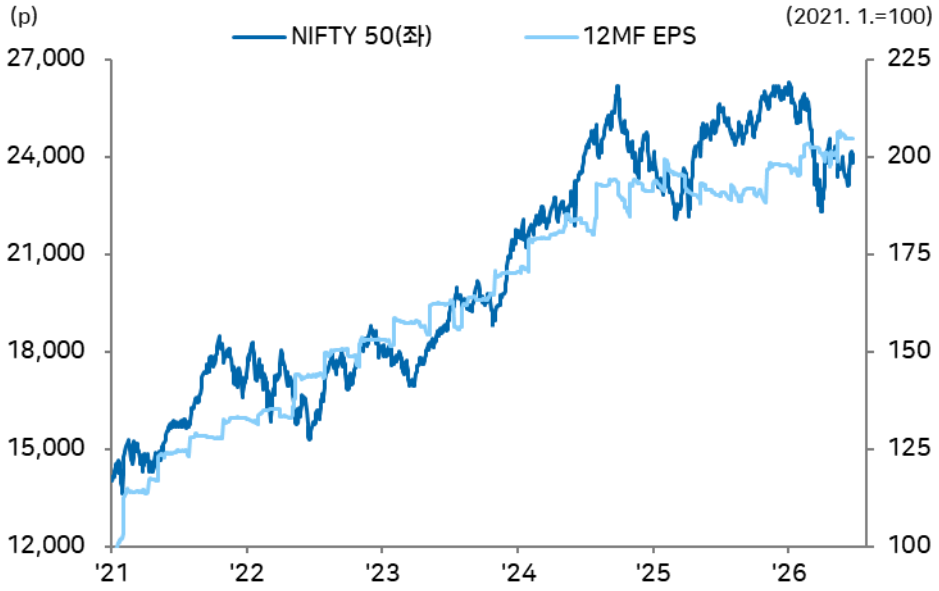
하반기 달러/루피 환율은 수급 개선 및 당국 개입 경계감에 하락 예상

✓ 인도 기업의 12개월 선행 EPS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유지해온 반면 주가지수는 작년 말 이후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모습

✓ 이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따른 수급 요인과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결과. 하반기 과도한 수급 쏠림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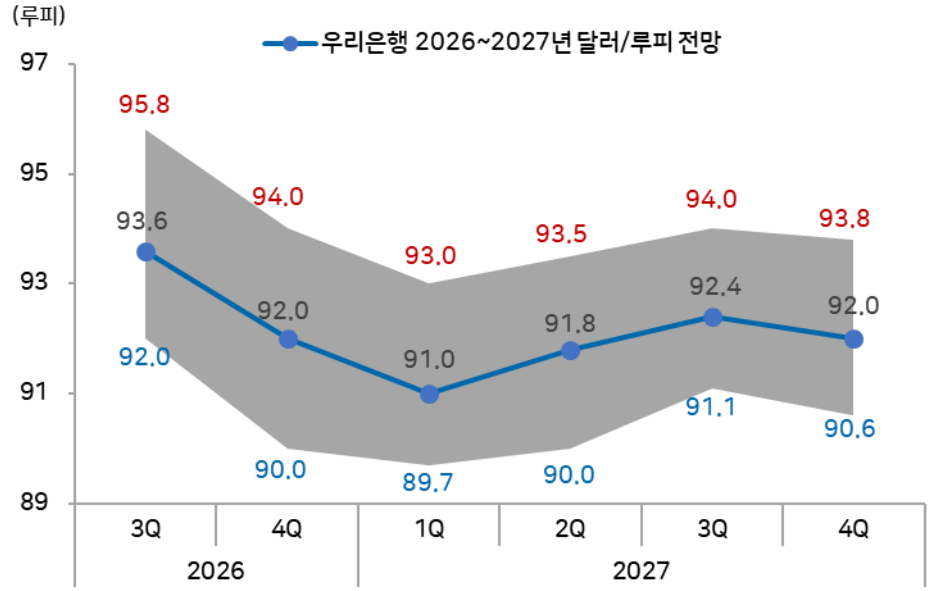
✓ 하반기 루피화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루피화 방어 노력과 증시에서의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

인도의 기업이익 성장에도 주가지수는 밸류에이션 조정에 정체 국면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하반기 달러/루피 환율은 인도 펀더멘탈과 증시 외국인 유입 기대에 하락 예상



IV. 견조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는 폴란드 즈워티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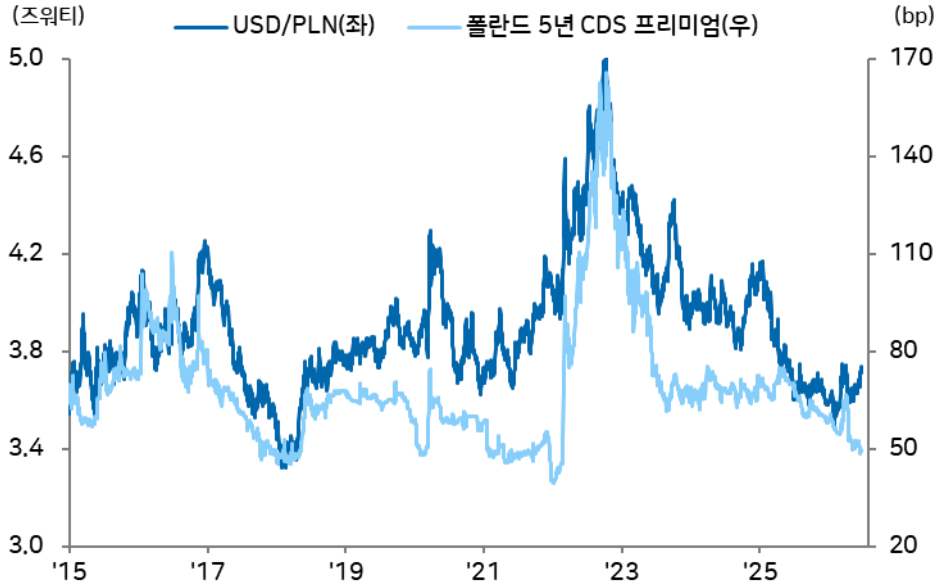
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즈워티 소폭 약세

✓ 달러/즈워티 환율과 폴란드의 CDS 프리미엄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최근 두 지표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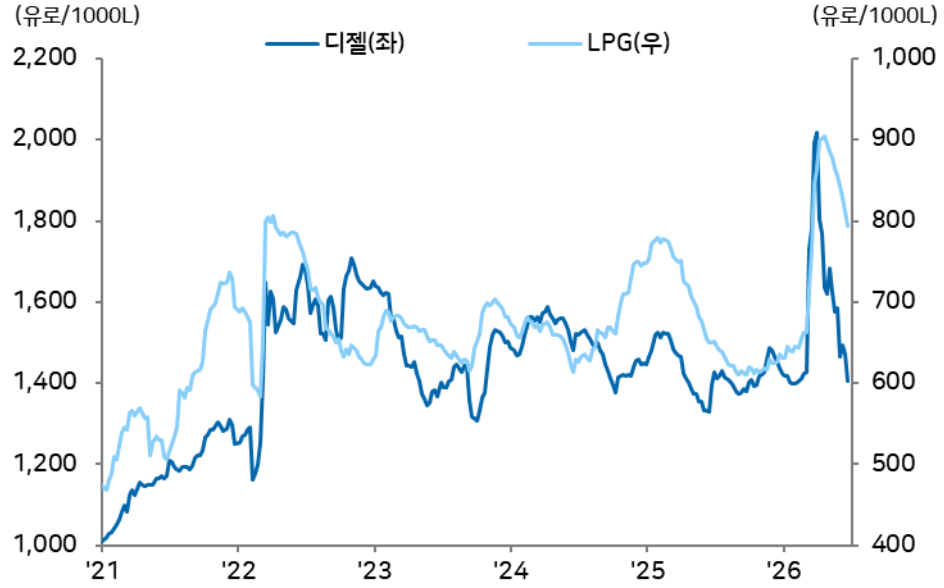
✓ 다만 최근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즈워티 환율은 소폭 약세로 돌아서는 등 달러 강세 등의 여파가 일부 영향

✓ 올해 중동 리스크 부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단기간에 되돌려지며 충격 해소 기대

폴란드 CDS 프리미엄은 하락 국면, 달러/즈워티는 3.5~3.8즈워티 등락



폴란드 내 디젤과 LPG 가격은 최근 급등 후 빠르게 되돌림 시현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V. 견조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는 폴란드 즈워티 강세

낮아진 폴란드 리스크 프리미엄에 즈워티 강세 우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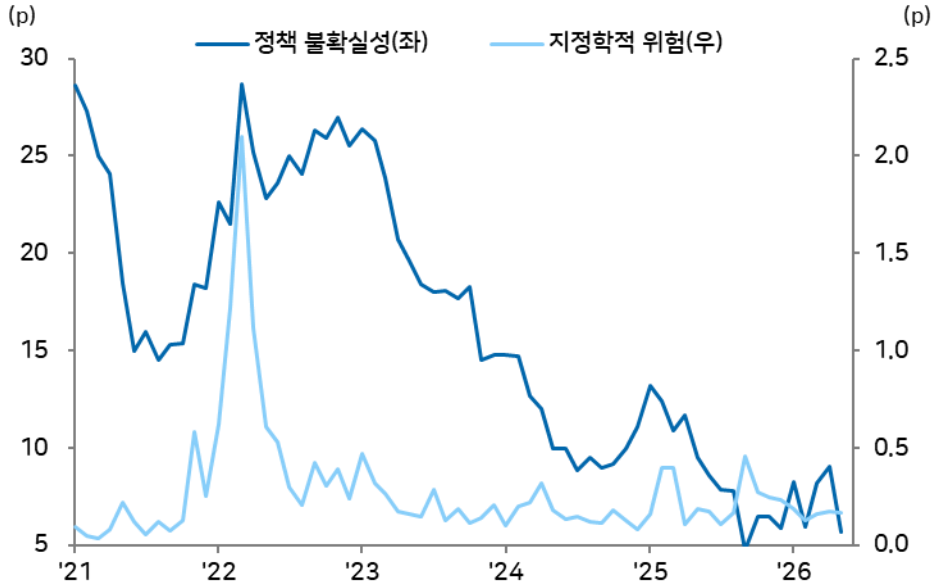
✓ 폴란드와 독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2.2%p 수준으로 하락. 여기에 정책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위험 지수도 평시 수준으로 회귀

✓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정학적 위험 지표와 달리 정책 불확실성은 전쟁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가시화되며 서서히 해소

✓ 그러나 결국 거시 및 경제정책 리스크 지표들이 일제히 낮아진 가운데 즈워티 가치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흐름을 예상

폴란드-독일 스프레드는 6월 말 2.2%p 수준으로 하락해 과거 평균 수준 회귀

6월 들어 폴란드의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은 추가 하락 안정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V. 견조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는 폴란드 즈워티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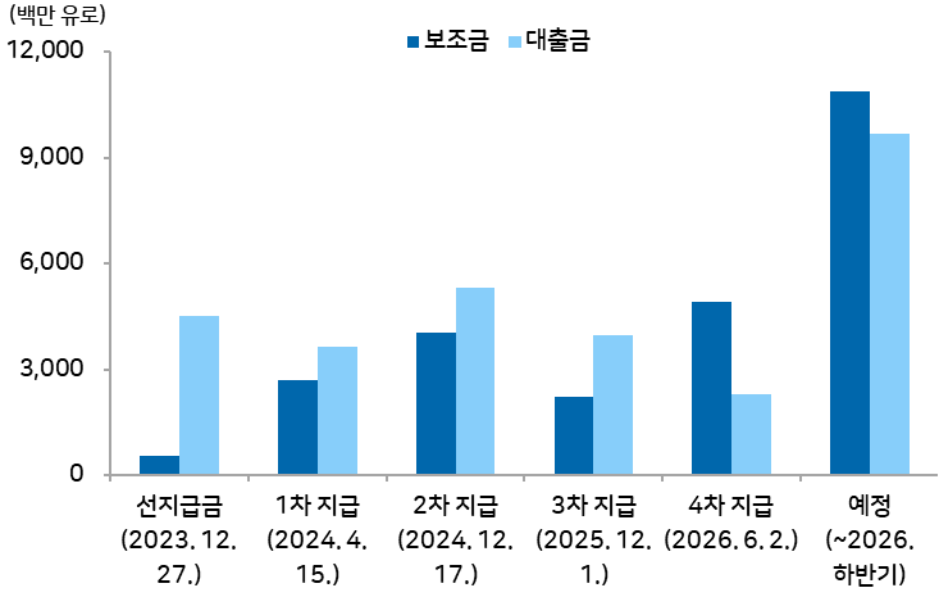
본격화된 RRF 자금 집행은 즈워티에 우호적인 변수

✓ 폴란드의 EU RRF 자금은 지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정 지급분은 보조금과 대출금을 합쳐 205억 유로

✓ 과거 폴란드가 사법개혁 관련 EU와의 갈등으로 자금 수령이 지연되었던 것과 달리, 최근에는 자금 집행이 본격적으로 정상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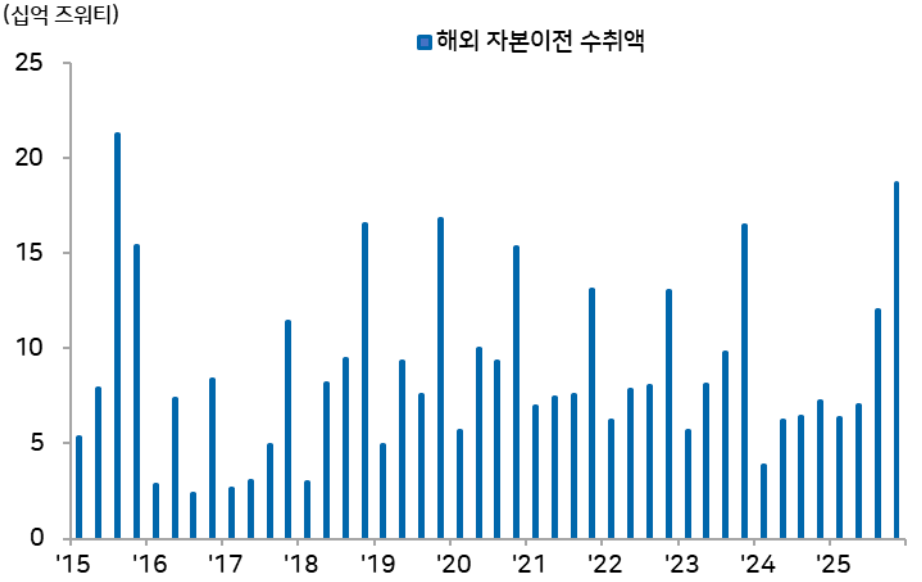
✓ 폴란드의 자본계정을 통한 유로 자금 유입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폴란드 내 투자 수요를 증대시켜 즈워티 강세에 우호적

올해 하반기 200억 유로 이상의 EU RRF 자금이 폴란드에 지급될 예정



출처: Bloomberg, EU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폴란드의 해외 자본이전 수취액은 RRF 지급과 함께 확대될 전망



IV. 견조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는 폴란드 즈워티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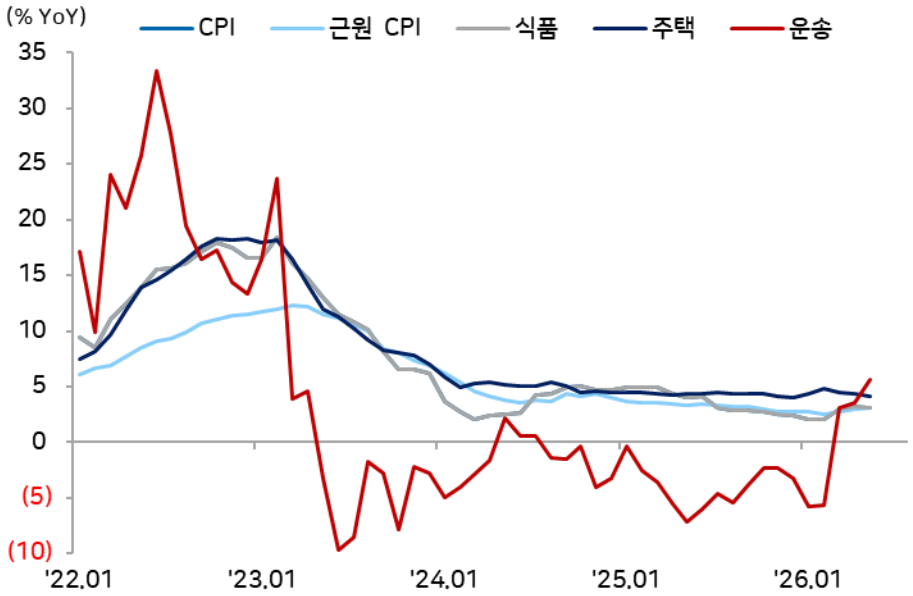
유가발 인플레이션 리스크 점진적 소멸 예상

✓ 폴란드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3%대 상승으로 하락. 다만 전쟁 발발 후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상승은 우려 요인

✓ 폴란드 임금 상승률은 고인플레이션 시기였던 2022년 18%에서 물가 안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둔화돼 최근에는 6~8%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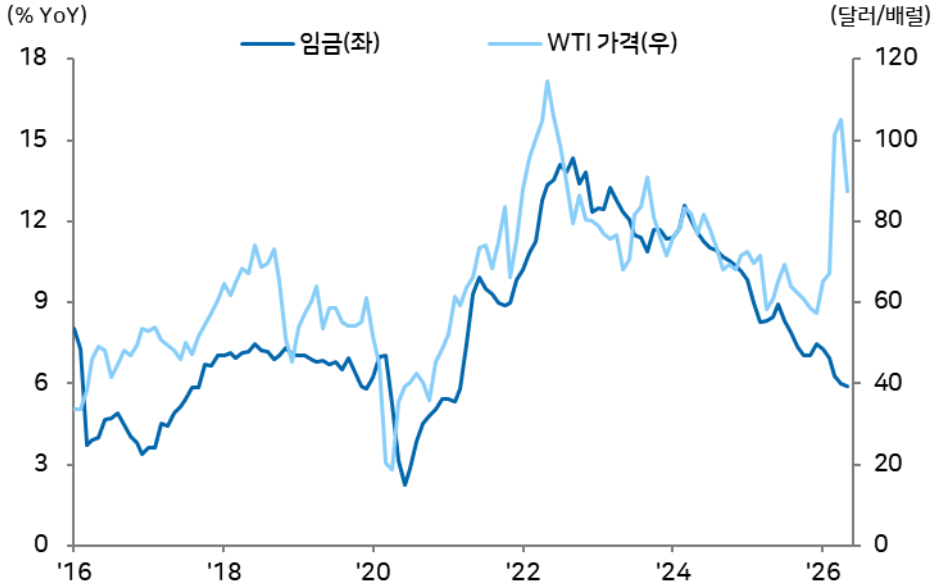
✓ WTI 가격이 단기간 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운송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향후 물가 상승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소멸될 전망

폴란드 소비자물가는 서비스 물가 둔화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.1% 상승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폴란드 임금상승률은 국제유가 반등에도 전년동월대비 6% 대 상승하며 안정



IV. 견조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는 폴란드 즈워티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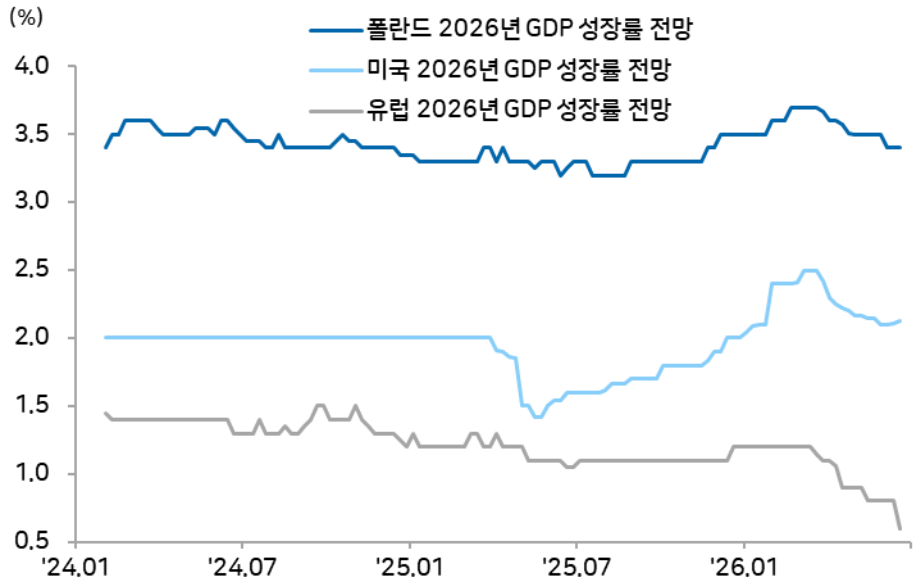
유럽과 디커플링된 폴란드 성장 전망

✓ 폴란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%대 중반을 유지하며 유럽의 둔화 흐름과 분명한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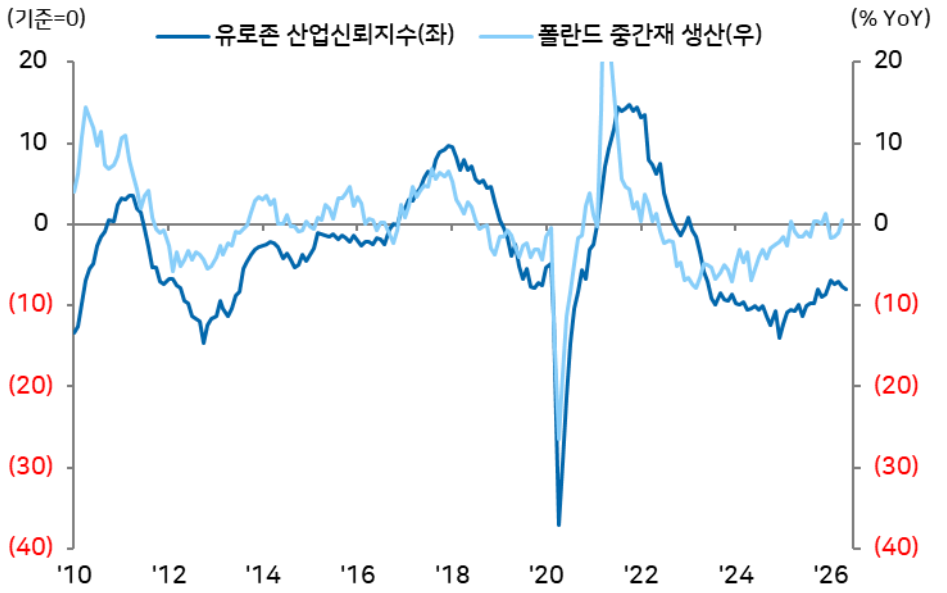
✓ 한편 유로존 산업신뢰지수와 폴란드 중간재 생산은 동일하게 움직였으며 최근 두 지표는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권

✓ 폴란드의 제조업, 산업생산 부문은 여전히 유로존 전반의 산업 경기에 강하게 존속. 향후 유로존 산업경기의 향방이 주요 변수

폴란드 2026년 성장률 전망 3%대 중반 유지, 유럽은 1% 밑으로 하향



폴란드 중간재 생산은 유로존 산업신뢰도 지수와 높은 동조성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V. 견조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는 폴란드 즈워티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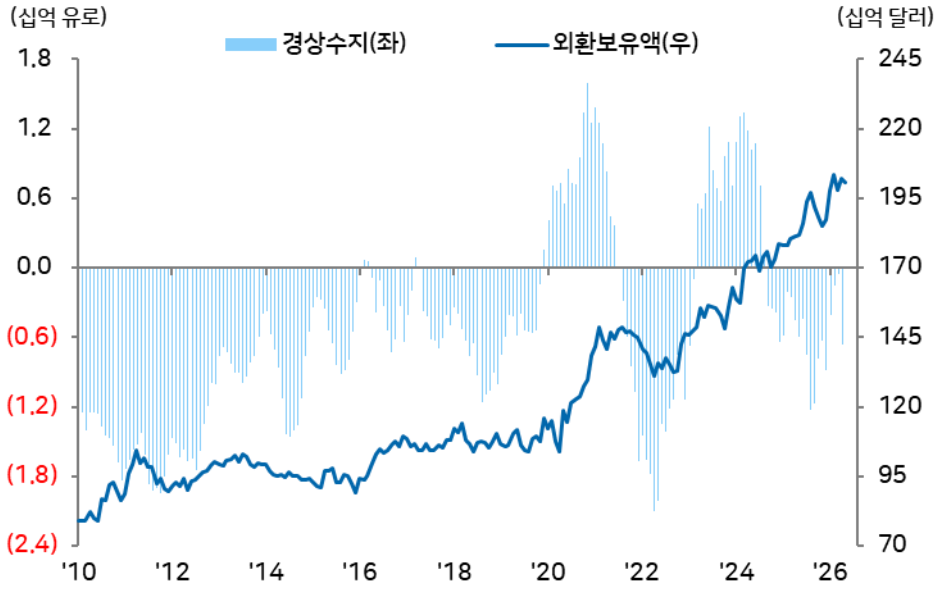
투자 확대가 견인하는 폴란드 경기

✓ 폴란드 경상수지는 2020년 이후 적자 폭이 줄거나 일시적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등 등락. 올해 들어서는 경상수지 적자 흐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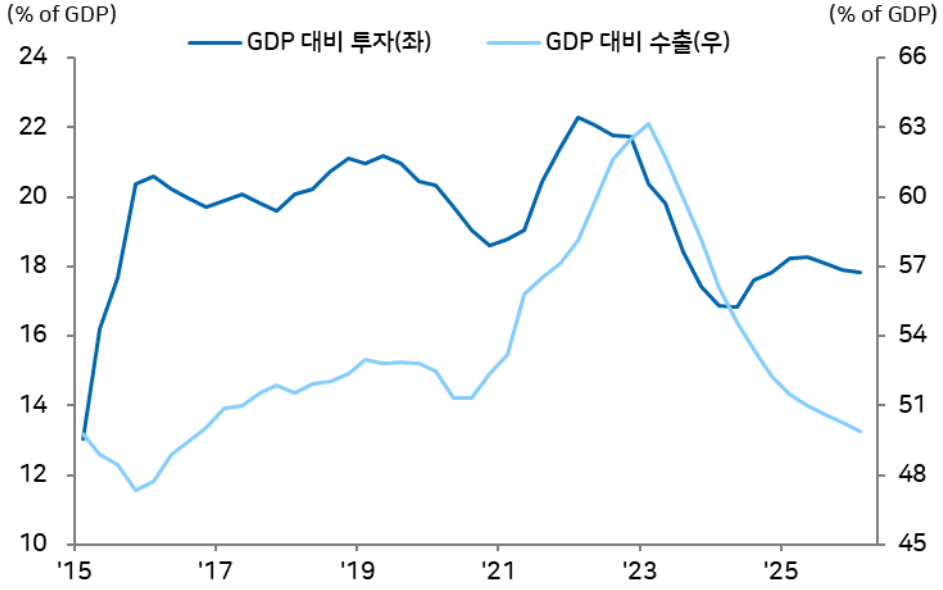
✓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의 등락과는 무관하게 최근 2,000억 달러 안팎까지 꾸준히 늘었는데 자본이전 유입 등이 외환보유액 방어

✓ 폴란드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낮아지며 수출이 견인하던 성장동력 약화. 다만 투자는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며 투자 중요성 증대

폴란드 외환보유액은 5월 말 2,000억 달러로 확대



폴란드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50%로 축소, 투자는 18% 중심 유지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IV. 견조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는 폴란드 즈워티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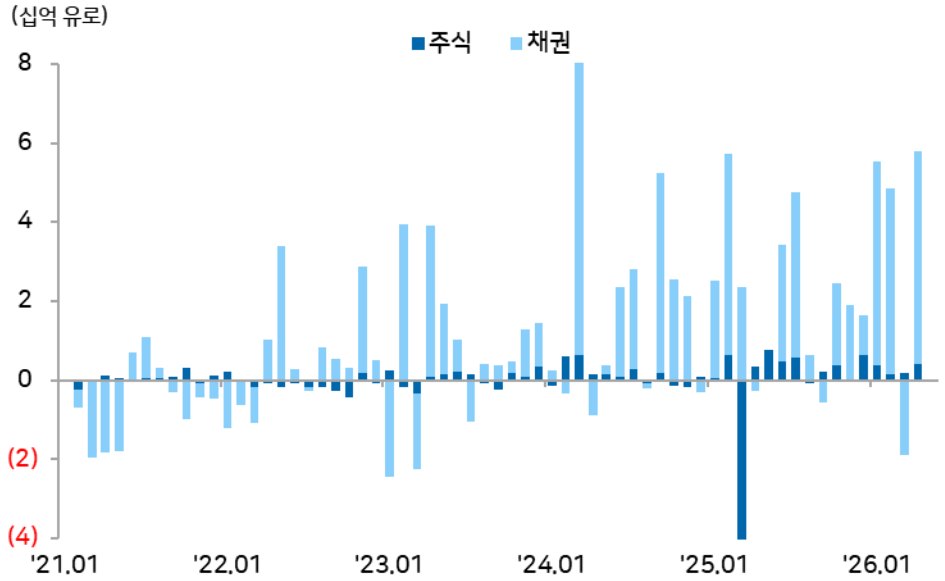
하반기 즈워티는 양호한 자금 유입과 견조한 펀더멘탈에 강세 지속 예상

✓ 폴란드로의 외국인 자금은 채권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유입세를 이어가는 반면 주식은 이벤트에 따라 자금 이탈 가능성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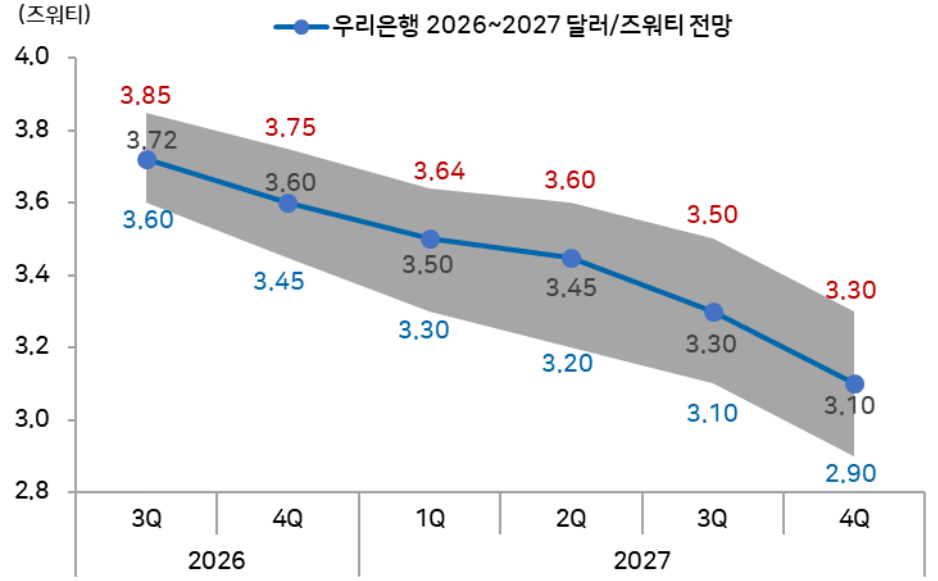
✓ 하반기 즈워티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. 폴란드의 안정적인 국가신용도에 채권 중심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영향

✓ 금리 스프레드 하락, 안정적인 성장률 전망 등 폴란드 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여전히 높은 점도 즈워티 강세를 지지

외국인의 폴란드 증권 순매수는 채권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



하반기 달러/즈워티는 3.45~3.85즈워티 구간에서 하락 압력 우위



출처: Bloomberg,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임환열).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행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행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해도 당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는 자본시장법 상 조사분석자료가 아니며 조사분석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또한 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행이 본 자료에 언급된 통화 및 관련 금융상품 등을 거래하거나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당행이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.

본 자료에 기재된 의견은 예측에 불과하며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고 일정한 주기로 업데이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사전동의 없이 복사, 인용, 배포, 전송, 대여 및 변경될 수 없습니다